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영국보험협회(ABI), 손해보험사기 규모 발표

□ ABI는 ‘적발되지 못한(undetected)’ 손해보험사기 규모가 2008년 19억 파운드에 달해 2006년의 16억 파운드보다 24%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 2008년 ‘적발되지 않은’ 손해보험사기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6%에 해당하며, 개별 보험계약자의 1년 평균보험료를 44파운드 인상시킨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분석함.
- 또한,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적발되지 못한’ 보험사기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해볼 때 영국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발표함.

	2006 적발되지 못한 보험사기	2008 적발되지 못한 보험사기(A)	2008 수입보험료(B)	보험사기 비중 (A/B)
개인보험	10억 파운드	12억 파운드	212억 파운드	6%
단체보험	6억 파운드	7억 파운드	123억 파운드	6%
전체	16억 파운드	19억 파운드	335억 파운드	6%

□ ‘적발된(detected)’ 손해보험사기 규모는 2008년 7억3천만 파운드에 달해 2004년 이후 매년 30%씩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6	2007	2008
자동차보험	2.59	3.17	3.89
재물보험	2.35	1.85	3.04
배상책임보험	10.76	8.89	7.82
여행보험	1.20	0.63	1.84
전체	3.26	3.16	4.19

□ 손해보험사기 전체 규모(detected+undetected) 중 적발된 보험사기는 2006년에 23%(5억 파운드/21억 파운드)를 차지한데 반해 2008년에는 27%(7억 파운드/27억 파운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의 전체 보험사기 규모(27억 파운드)는 2006년(21억 파운드)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적발된’ 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사 등의 노력에 힘입어 약 1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ABI Research Brief, July 2009)